

광주·전남 가스공급비 서울의 2배

광주·전남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7일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난방용 기준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2.8배가 차이가 나는 등 가격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료비는 m³당 667.24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았으나 공급비용은 m³당 서울은 47.09원, 경기 57.24원, 인천 52.54원인 반면 대구가 98.79원, 광주 99.84원, 대전 102.44원, 부산 102.55

m³당 서울 47원 광주 99원 목포 125원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가격 편차 커져

원이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공급비용은 더욱 높아져 여수 98.00원, 순천 111.48원, 목포 125.83원으로 목포의 경우 서울보다 2.7배나 비싸게 공급받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업체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해당지역에 공급하는 공급비용을 각 지자체장과 협의

해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을 합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도시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지방도시의 가스요금 이 더 비싼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가격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가스 소매가격도 지역별

로 최대 4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은 이날 “가스의 종류에 따라 m³당 지역별 기본요금은 최대 4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시가스 가격의 지역간 격차는 도시가스 소매부문을 전국단위에서 조율하는 기구가 부재한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로 주택·난방용은 23.0%, 업무난방 12.4%, 일반용 18.0%, 냉방용 25.9%, 산업용 15.0%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호 손길 기다리는 필리핀 이재민

계속되는 비로 인해 필리핀 시민들이 7일 현재 2주동안 마닐라 동부 파식시(市)의 한 체육관에 대피해 있다. 필리핀은 지난달 26일 폭우와 산사태를 야기한 태풍 켈사나로 인해 수백명이 사망하는 등 40년만에 최악의 풍수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영남 편중 심하다”

대학 선정·국고 지원금 ‘호남의 두배’

민주 김영진 의원

호남권 대학이 ‘5+2 광역경제권’의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영남 2개 권역, 호남 1개 권역으로 설정된 광역경제권 계획을 바탕으로 대학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광역경제권

구분에 따라 인재양성사업 대학(2009~2013년)으로 영남에는 대경권 4개 대학(경북대, 계명대, 금오공대, 영남대)과 동남권 4개 대학(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등 8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에 반해, 단일 광역경제권인 호남은 영남의 절반인 4개 대학(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목포대)이 선정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영남지역 8개 대학에는 올해 384억원이 지원된 반면, 호남지

역 4개 대학에는 영남의 절반인 194억원이 지원됐다. 이같은 지원은 자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13년까지 계속된다.

또한, 정부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2009~2013년)을 시행하면서 광역경제권을 근거로 영남에는 대경권과 동남권을 합쳐 5개 대학(경북대, 경운대, 경상대, 동명대, 진주산업대)을 선정, 48억원을 지원한 반면 호남은 3개 대학(순천대, 전주대, 호남대)에 27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호남권 4년제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영남권 대학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년제 대학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에 따르면 호남권 23개 대학(광주전남 15개, 전북 8개)의 국고보조금은 1천69억원에 불과한 반면 영남권 33개 대학에는 3천112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4년제 대학의 평균 국고지원금은 43억원에 그친 반면, 영남 지역 4년제 대학은 95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잘못 설정된 광역경제권을 토대로 대학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학 교육 격차에 따른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 등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내달 서울서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18~19일 방한

북핵·6자회담 등 북핵 등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18일 방한한다.

청와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8일과 19일 이들 동안의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한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비롯, 한미 양국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심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

세계 금융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등 법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2일 G20 런던 정상회담과 6월16일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에 이어 세번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과 함께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도 방문한다.

/임동욱 기자 tuim@

오바마 “알 카에다 반드시 척결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규모 축소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근거지가 어디가 됐든 알-카에다 척결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근교 테러센터(NCTC)를 방문, “알-카

에다와 연대 세력이 파키스탄은 물론, 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알-카에다를 향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알-카에다가 어디에 정착하든 우리의 목적(테러세력 척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많은 미국인이 정보요원들 덕에 목숨을 잃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요원들의 공을 치하한 뒤, “나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 내가 가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며, 정보요원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다.

/연합뉴스

“F1 경주장 국고지원 차질 없도록”

김형오 국회의장 영암 방문

전국 국토현장 투어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7일 영암을 방문, “포틀러(F1) 대회 경주장 건설비용 국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영암군 F1 경기장 건설 현장을 찾아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F1 대회 경주장 사업비 지원에 차질

이 없도록 여야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F1 대회 성공은 국가적 위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자긍심을 갖고 F1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북 쌀 지원 법제화에 대해서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북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쌀이 남아돌고 있지만, 대북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 희망탐방’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영암군 F1 경기장 신축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영암에서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현황을 살펴보고 나서 오후에는 명랑대첩

기념공원, 고산유적지, 영산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을 돌아봤다.

/박정욱기자 jwpark@

정부 “김정일 3남 김정운→김정은으로 표기”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에 대해 “김정은”으로 표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과 관

련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전제를 달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김정일 위원장 3남

의 이름과 직책을 정리해 달라’는 한 의원의 요청에 “이름은 김정운으로 알고 있다”며 “‘부국장급’이라는 건 정보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가발

초슬림!!

각 50만원~

귀하의 몸무게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062-673-5858, 062-622-1111

인디안 아울렛 새단장 OPEN

광주주월점

70~50%

정상·상설복합 매장 주월릉빅마트원

구매고객께 사은품 증정!

062)654-7205